

광산구,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시민축제 성료

‘광산여성이 외치다!’ 기념주간 신창동 마을 곳곳 문화행사 개최

광주 광산구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산여성이 외치다!’를 주제로 진행한 기념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는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했다. 마을, 시민 주도로 여성의 인권, 노동, 문화,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성평등 행사’가 광산구 곳곳에서 펼쳐졌다.

지난 6일 수완동에서 ‘엄마’ 또는 ‘여성 리더’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길, 그들에게 듣는다’ 행사를 시작으로 여성친화기업 현장 방문, ‘당신의 3월8일 알려주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8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 광산구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산여성이 외치다!’를 주제로 진행한 기념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제공

기념식은 500여 명의 시민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 8명에 대한 표창, 여러 단체·기관의 연대의 메시지 공유에 이어 전체 참여자들

이 함께 ‘상생하는 성평등 광산’ 실현을 다짐하는 보랏빛 물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송정1동, 첨단1동, 신창동 등 마을 곳곳

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인권 OX 퀴즈, 그림책 전시, 성평등 그림책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광산구 이주여성들은 ‘방탄이주여성단’을 결성, 새활용

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행동’을 벌였다.

또 1908년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빵과 장미를 전 직원과 나누며 성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알렸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공직자 200여 명이 구청 7층 운상원 홀에서 영화 ‘서프러제트’를 시청하고, 성평등 인식 증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되새겼다.

범시민적 축제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린 광산구는 폭넓은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주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 확대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광산구청장은 “성평등은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상생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구청의 지향점을 성평등에 두고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서구, 주민 대상 맨발걷기 교육 ‘인기’

상무시민공원에서 현장교육

광주 서구에서 ‘맨발걷기’ 운동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10일 상무시민공원 맨발로(路)에서 박동창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회장을 초청해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맨발걷기 주민동호회 회원 및 서구민 100여 명이 참석해 걷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배우고 맨발체조 및 맨발걷기 등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일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장인 권택환 대구교육대 교수를 초청해 맨발걷기 방법과 효과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맨발걷기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14일부터 11월까지 상무시민공원, 풍암호

수공원 일대에서 주 3회 맨발걷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서구도 일상 속 맨발걷기 활성화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한편 서구는 맨발 산책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해 상무시민공원·풍암호수공원에 황토 및 마사토길, 세죽장 등을 설치했고, 올해 금호·쌍학어린이공원, 동천동 녹지대를 활용한 맨발로(路) 조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8개 동에 마을별 맨발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맨발걷기는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치료법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함께 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서구만의 일상문화가 될 것이다”며 “주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맨발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남구, 어르신 위한 ‘키오스크 체험존’ 마련

구청 1층 북카페에 설치 병원·은행 등 상황별 체험

광주 남구는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 1층 북카페에 키오스크 체험 공간을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최근 카페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키오스크 도입 사례가 늘면서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등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520만원을 투입, 최근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옆 북카페에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 공간을 설치했다.



광주 남구는 구청 1층 북카페에 키오스크 체험 공간을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

광주 남구 제공

이곳에는 터치 디스플레이 방식의 키오스크 2대가 배치돼 있으며, 주민들은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키오스크 활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용 키오스크 기기에서 제공하는 시

뮬레이션 콘텐츠는 △고속버스터미널 △영화관 △카페 △공항 △무인발급기 △프랜차이즈 △병원 △은행 △휴게소 △열차 △마트 △주차확인 등 12종류이다.

체험자가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따라 맞춤형 오더를 입력하면 실제 카드 결제기와 연동돼 영수증 출력까지 모든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남구는 체험 공간에 도우미를 배치해 키오스크 체험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실제 환경과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해 누구나 쉽게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며 “키오스크 교육 수요에 맞춘 스마트폰 연계 교육 등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